

황금률의 참 뜻

The True Meaning of the Golden Rule

마태복음 7:7-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8월 26일 설교

⁷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⁸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⁹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¹⁰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¹¹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¹²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

수많은 황금률?

황금률 (黃金律)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영어로 The Golden Rule이라 하는 걸 한자어로 옮겨 황금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쉽게 써 보면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남에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생각도 행동도 다 내가 하니 당연하지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다 보면 남은 깜빡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대할 때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남이 나를 대하듯 나도 남을 대한다, 이런 원리를 상호성 (相互性, Reciprocity)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지요. 함께 사는 세상이니깐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는 일은 인간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 있는 곳은 어디나 이 상호성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유명한 보복원칙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원리지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시다. 역지사지 (易地思之),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도, 영어 속담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봐라, 하는 것도, 다 상호성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걸 윤리로 가르친 사람도 많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뭘니까? “기소불욕 (己所不欲)을 물시어인 (勿施於人)하라.”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유대교 랍비 힐렐도 공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는 그게 바로 율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도 “남이 해 주었으면 하는 걸 남에게 해 주어라” 하시고는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다시 말해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하셨습니다.

공자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통합됩니다. 그래서 스무 해 전 (1993) 세계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구촌 윤리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세계 여러 종교의 공통본문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황금률을 잘 가르치고 지키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겠지요.

성경의 핵심

예수께서 성경의 핵심이다, 전체 성경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있고, 서양속담에도 있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 있다면, 의문이 하나 생기겠지요? 성경은 그럼 뭐 하러 있나,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것 잘 배우면 될 걸 성경을 주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황금률이 아닙니다. 황금률이 맞긴 맞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호성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황금률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 부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에는 없는 게 주님 말씀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점, 곧 세상 황금률에는 없는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 황금률에는 없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수직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수평이지요. 너하고 나, 상호성은 당연히 수평입니다. 그런데 이 수평 관계 말고 수직관계가 있습니다. 수평과 무관하게 따로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수직관계는 언제나 수평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평 관계든지 이 수직관계가 없는 수평관계는 없습니다. 너와 내가 이

어져 있는데 그렇게 잇는 선은 항상 저 위에 또 달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작품인데 보통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이웃은 그럼 누구니까? 이웃도 사람이지요?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 이웃이 기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웃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웃이 사기 당한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분노하십니다. 나는 이웃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죄가 됩니까? 사람에게 하는 나쁜 짓을 하나님이 보시면 죄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 선이 됩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그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도 갑니다. 나도 이웃도 다 자유와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어느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랍비 힐렐이 나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라 하면서 그제 율법의 요약이라 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 곧 상호성의 원칙은 완벽하게 지키는 거겠지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있습니까? 그 말씀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4).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일은 하난데 차원이 옆으로 또 위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요.

이 수직관계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세상 황금률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직관계를 보여주는 첫째 요소는 “그러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것들이 이유가 되고 그 결론을 말할 때 씁니다. 결론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걸 너도 저희에게 해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는 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끈질기게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친 믿음과 같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한 번으로 마음이 안 놓이시는지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찾는 사람 모두에게 찾게 해 주시고, 다시 말해 만나 주시고, 누구든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십니다. 아버지니까 주십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도 참 많습니다만 아버지는 본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지요. 아버지니까 그냥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좋은 걸 줍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지요. 어느 아버지가 먹지도 못하는 돌을 주면서 옳다 먹어라 하겠습니까? 탄수화물만 먹어서는 안 되지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니까 생선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생선 대신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뱀을 주겠습니까? 떡과 물고기는 나중에 주님이 오천 명을 먹이실 때 주실 음식입니다만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음식의 대표겠지요.

주님은 사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하십니다. 사람은 악하지요.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다 악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사람처럼 악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보이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실 줄이야 말할 필요조차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이 우주를 뛰어넘어 계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돈도 좀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좋은 집도 주고, 먹을 것도 평생 끊이지 않게 해 주고, 하여간 우리가 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다 주시니 옆에서 구하려고 빼앗고 속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이 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해 주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관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요소는 “긍정문”입니다. 세상이 황금률이라 부르는 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립 아니면 부정입니다. 중립은 일반 원리입니다. 상호성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요. 보복의 원리, 갚음의 원리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도 있고 남 신발 신는 것도, 우리가 배운 역지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부정문입니다. 나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공자도 힐렐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긍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만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논리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하고 “해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싫은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을 논리적으로 긍정으로 바꾸면 좋은 일은 해라,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같습니까? 싫은 건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키기 어려울 경우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건 해주라 하는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윤리에 뛰어난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결과는 뭘니까? 고립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에게 해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는 몇 해 동안 집밖에 아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나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겠지요? 이젠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이 황금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우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바라는 그대로 이웃에게 해 주라 하실 때는 영원한 저주와 파멸에 빠졌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제합니다.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옆으로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하는 정도였다면 주님도 안 오셨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

황금률은 사실 아주 복잡합니다. 너와 나를 함께 고려하는 상호성, 말은 참 간단한데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하여간 죄가 있으면 다 복잡해집니다. 버나드 쇼 (Bernard Shaw)라는 풍자 작가 아시지요? 이 사람이 황금률을 아주 우습게 고쳤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기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는 하지 말라. 나하고 남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맞는 말이지요? 칼 포퍼 (Karl Popper)라는 철학자는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요.

문제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남이 나에게 뭔가 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지금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만약 죄로 물든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죄로 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죄가 아니라도 사람마다 취미가 다릅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클래식이 좋더라 싶어 다른 사람을 위해 클래식을 틀었더니 나는 팝송이 좋은데 왜 클래식을 틀었느냐 따집니다. 버나드 쇼 말처럼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금률은 내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나 칼 포퍼가 아니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 많은 원리로 세계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황금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망하고 만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뭐니까? 세상 살자면 먹고 입는 것도 필요하지요. 삶의 보람을 느끼려면 뭔가 성취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원할 파멸과 저주로 가게 되었는데 남 못 이룬 것 아무리 이룬들 뭐가 기쁘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율법,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내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더 달라할 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건 많지만 하나님은 다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남들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건 알아서 다 주신다 하십니다. 뒤집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알아서 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이 마음이 기준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약 2:13).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니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안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도 해 주어라” 하신 다음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사랑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비슷한 이 말씀입니다.

수직이 없이는 수평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주님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주일 살핀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니까? 나도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이 다시 불러 빚을 갚게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감옥에 넣으실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

돌고 둥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만,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능력이 되어야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만이 나도 백 데나리온을 탕감해주고 같이 손 잡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상호성의 원리는 전혀 답이 못 됩니다. 버나드 쇼가 지적했듯이 내가 바란다고 남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칼 포퍼가 지적했듯이 남에게 해 주려면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 주어야지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줘니까? 주님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 은혜에 맞게 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위에서 오는 사랑을 맞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옆으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 주님이 오늘 가르치신 이 원리로 가득합니다. 잠언 말씀에, 흠이 구제하면 부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돈 버는 재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 11:24).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롬 15:7; 엡 4:32; 골 3:13).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안 들을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잠 21:13).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우리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고후 8:9).

이웃이 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웃에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말씀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의 힘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